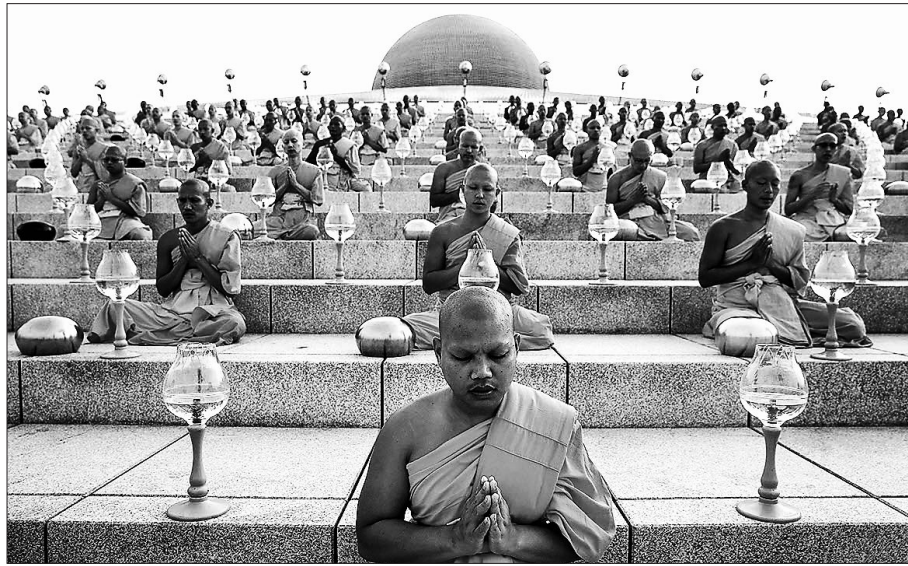


시주금 횡령·환각제 소지...태국 불심 '솔렁'

태국 담마까야 사원 등 승단 부정부패 확산

대표적인 불교국가 태국에서 승가의 부정부패가 잇따르자 재가불자들의 불심이 솔렁이고 있다.

《Irish Independent》지는 3월 2일 "태국의 대표 사원 담마까야(Dhammakaya)의 '시주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싸라(Issara), 솔락 시바락사(Sulak Sivaraksa) 등을 필두로 태국 재가불자들이 '사원 감사'와 '청정 승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불교국가 태국에서 승가의 부정부패가 잇따르자 재가불자들의 불심이 솔렁이고 있다. 사진은 태국 대표 사원 담마까야에서 거행하는 수계의식.

"태국 불교는 '독에 물든 과일'과 같다"고 전제한 사회운동가 이싸라 씨는 《Irish Independent》지와의 인터뷰에서 "태국의 재가불자들은 사찰 회계 감사를 엄중히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는 태국 불교가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 불교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횡령·환각제 소지·주식 투자 등 승단 잇따른 부정부패 알려져 불교지도자 및 사회운동가 "정부 감시·자정 노력 절실" 촉구

《Irish Independent》지에 따르면, NRC가 태국의 대표 사원 담마까야의 9백만 바트(한화 약 3억 5백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포착·고발했지만, 정치적 벽을 넘지 못한 채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이싸라 씨는 "담마까야 사원의 횡령 혐의 사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원 또는 스님의 일탈 행위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며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반불교적 행위'에 지친 재가불자들이 불교계 자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Irish Independent》지에 따르면, 담마까야 사원의 '횡령 의혹'에 앞서 12만 알의 환각제를 소지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스님과 7십만 파운드(한화 11억 7천여만

원) 규모의 주식 투자를 남몰래 하다가 적발된 스님 등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 태국 승가에 대한 재가불자들의 불심이 커질 만큼 커졌다.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명품 스님'으로 알려졌던 루앙 푸 넨캄(Pu Nenkham) 스님의 일탈 행위가 바로 태국 승단의 지금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다"는 이싸라 씨는 "태국의 재가불자들은 이제 '승단 자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앙 푸 넨캄 스님은 해외 명품 등을 갖고 개인 제트기를 타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뒤 태국 재가불자들의 공분을 샀고, '부정축재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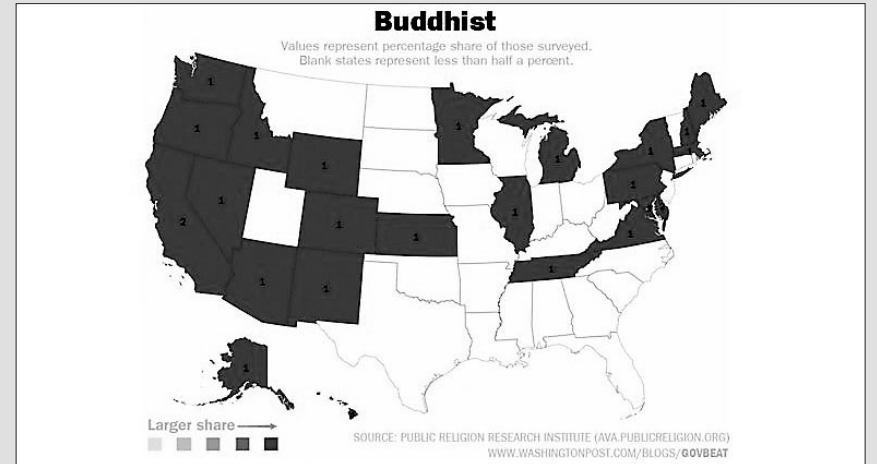
"태국 승단은 돈과 권력이라는 소용돌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한 태국의 불교지도자 솔락 시바락사는 "처음에는 놀라고 믿기 어려웠던 태국 국민들도 이제는 승단의 감언이설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라며 "태국 승단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불교계에도 확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Irish Independent》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압 감시와 승단의 자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3십만여 명에 이르는 스님들을 일일이 관리하고, 이미 자본주의에 노출된 스님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불교, 13개 주서 기독교 뒤이어 주목

PRRI '종교인구 조사결과' 발표...기독교 위상 '흔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교는 하와이, 알래스카,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13개 주에서 기독교의 뒤를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깔된 부분이 불교 강세를 띠는 지역이다.

《Paheos》지는 최근 발표된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이하 PRRI)'의 '종교인구 조사결과'를 인용, "불교는 하와이, 알래스카,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이다호, 몬테나,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캔자스,

독교인"이라고 밝힌 유타 주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미시시피 주에서는 응답자의 81%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불교계에도 확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Irish Independent》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압 감시와 승단의 자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3십만여 명에 이르는 스님들을 일일이 관리하고, 이미 자본주의에 노출된 스님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독교를 뒤이어 유대교는 15개 주, 이슬람교는 20개 주, 유대교는 15개 주, 불교는 13개 주, 힌두교는 2개 주에서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만명에 인터뷰·설문 실시

청·장년층 기독교 외 종교에 관심

오클라호마 등 13개 주에서 기독교의 뒤를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종교·윤리·문화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한 로버트 존스(Robert P. Jones) 'American Values Atlas' 대표는 "PRRI의 조사 이외에도 미국 내 다양한 종교 관련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조사 및 연구결과는 미국인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시사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 PRRI 조사결과와 그런 추이를 정확히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PRRI의 '종교인구 조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5만 건의 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American Values Atlas' 사의 맵핑(Mapping) 과정을 거쳐 지난달 2월 25일 인터넷 상에 제공됐다.

한편 "PRRI의 조사결과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가 기독교에 뒤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제한 《Paheos》지는 "이번 조사결과 청·장년층에서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미국인의 종교·윤리·문화에 대한 변화 추이가 더욱 폭넓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뷰와 설문 응답자의 47%만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밝혀, 미국 주류 종교로서의 기독교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응답자의 10%만이 '기

오종욱 편집위원

3D 프린팅시대... 이젠 불상도 프린트를?

일본 공업고등학교 학생들, 3D 프린터로 불상 만들어 봉안

일본의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3D 프린터로 불상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월 23일(현지시간) "일본 남부 와카야마현 현립 공업고 학생들이 최근 기노카와시 엔후쿠사(円福寺)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불상 복제본을 만들어 봉안했다"고 보도했다.

한 것이다.

하지만 어렵게 환수한 불상을 절에 봉안할 지를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기 시작했다. 결국 와카야마 현립박물관은 진품은 안전한 박물관에 보관하고 대신 정교한 복제본을 사찰에 두기로 하고 공업고등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 9명에게 불상 복제를 의뢰했다.



일본 남부 와카야마현 현립 공업고 학생들이 최근 기노카와시 엔후쿠사(円福寺)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불상 애염명왕입상(愛染明王立像) 복제본을 만들어 봉안했다.

라 잇신(81)은 "복제본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아주 놀라운 정도로 정교해 안심하고 진품을 현 박물관에 맡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와카야마현에서는 불상 도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현재까지도 약 160개의 불상이 도난 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나 기자

美의원들, 중국 티베트 여행 제한 해제 촉구

프랑스 의원 '티베트에 대한 대등한 여행 법안' 제출

미국 하원 의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티베트 여행 제한 조치 해제를 촉구하며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와 기자, 시민에 대해 티베트 여행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인에게 자유로운 미국 여행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는 3월 2일 "짐 맥케일 의원과 조 피츠 의원이 외교위원회에 '티베트에 대한 대등한 여행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은 외국인인 티베트를 여행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고, 그나마 정부의 엄중한 감시 아래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나 기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iban

나만의 원서세계 기iban

수련할때까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기iban

기iban

합선 안정과 편안, 건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www.hyunbulshop.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3월 中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답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